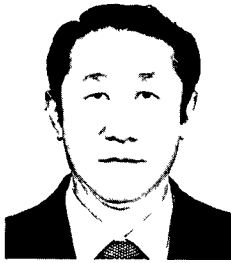


四象醫學과 哀怒喜樂

鄭 文 佑



一. 서론

기존의 한의학 이론은 음양오행설을 근거로 하였고, 東武 이재마 선생의 四象體質 醫學은 會四歸一의 사상철학을 자기의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사상인의 몸(혹은 장기)과 마음의 四端을 哀怒喜樂 등으로 기준하여 심신이 사람마다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관계되는가를 관찰, 연구하여 그 類型을 太陽人,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으로 나누어서 치료를 목표로 하는 체질의학이다.

한의학은 風寒暑濕燥火 - 六淫 등의 외적 邪氣가 病因이 된다고 인정하고 三陽三陰의 진행에 따라 虛証은 補하고 實証은 瀉하는 요법과 또 五行의 相生相克에 의하여 억제와 촉진의 관계가 교차적으로 이루어져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인체인데 그 균형이 파괴되면 病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사상의학은 肺脾肝腎을 四焦로서 육체를 상징하고 心은 정신을 상징한다고 한다.

上焦 ~ 肺, 哀 - 太陽人

中上焦 ~ 脾, 怒 - 太陰人

中下焦 ~ 肝, 喜 - 少陽人

下焦 ~ 腎, 樂 - 少陰人

위와같이 사상인에 귀속시킨다 만약에 성을 내거나 슬퍼하면 감정이 고조되어 흥분이 위로 상승한다 그러나 喜樂의 경우에 처음에는 감정적 흥분상태가 일어나지만 곧 느긋한 마음으로 돌아가 아래로 처져버린다 이와같이 哀怒喜樂이 장기의 升降기운과 함께 협력된다

사상의학에서는 몸과 마음의 大小偏差가 기본이다 사람이 타고난 장기에 대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폐가 크고 간이 작은 사람을 태양인이라 하고 간이 크고 폐가 작은 사람을 태음인이라 하며 脾가 크고 腎이 작은 사람을 少陽人이라 하고 신이 크고 비가

작은 사람을 소음인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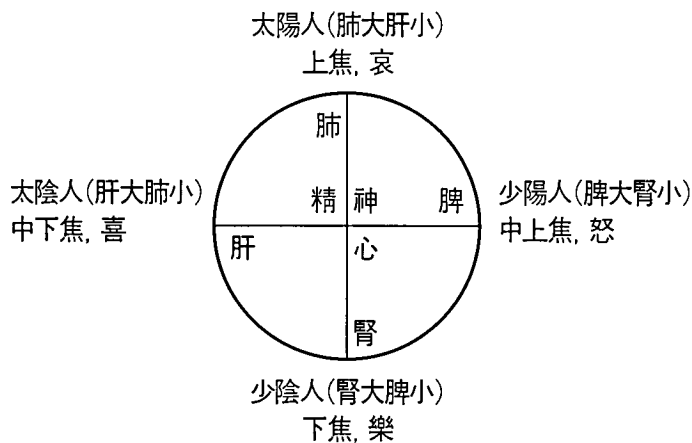
모종의 원인으로 하여 큰 장기에 기운이 지나치게 되면 병이 생기고 작은 장기에 기운이 모자라면 발병한다. 특히 哀怒喜樂(마음의 사상)의 性情이 지나치거나 측급하면 병이 발생한다.

사상의학에서는 五行의 개념을 배제하고 上焦(肺), 中上焦(脾), 中下焦(肝), 下焦(腎)라는 四焦의 개념을 세운다 五行은 相生相克의 개념을 중요시하고 四焦는 上下의 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四焦의 기운의 운동에서 上升과 下降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승이나 하강이나, 上升이면 直升이나 橫生이나, 下降이면 放降이나 陷降이나를 구분한다 사상의학의 四焦는 이같은 升降개념이지만 한의학의 五行은 回轉개념이다 예를들어 脾臟이란 명칭을 사상의학과 한의학에서 함께 사용한다 하여 그 脾臟이 가리키는 것이 똑같은 것이 아니며 脾臟疾病에 대한 치료법도 서로 부동하다

한의학에서의 脾는 肝의 기운에 억제되고 心의 기운에 의해 부추김을 받는 土의 위치에 있는 장기이지만 四象醫學에서의 脾는 中上焦로서 右로 끌고 올라가는 기운이며 그것도 비켜올라가는(橫生) 기운이기에 슬픔이나 노여움의 性情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장기이다.

〈四象體質(肺脾肝腎)의 大小偏差圖〉



× 心은 精神

二. 본론

四象體質醫學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類型不變의 원칙

체질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한번 타고난 선천적 유형을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갖고 있다. 그러므로 선천적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가변적인 조건을 잘 운용하여 조절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사상의학의 주요한 정신이 곧 가변하는 마음을 조절하여 불변하는 육체를 고쳐가는 것이다. 육체의 大小가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마음을 다스려 병을 고쳐야 하는 것이다

둘째 例外不許의 원칙

모든 인간의 유형이 사상외의 다른 예외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사상인의 중간형이거나 이른바 8상형 같은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藥物混用不許 원칙

사상인은 특유한 체질에 따라 溫熱寒涼의 약물성분이 결정되었으므로 혼용할 수 없다 사상의학은 변증론치하는 한의학의 虛實補瀉치료원칙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 특히 체질별로 쓰는 약재가 정해져 있어 맞지 않는 것은 처방에 포함할 수 없다. 예를 들어 少陽人은 양이 많고 음이 적으므로 양을 瀉하고 陰을 補하는 것을 병치료원칙으로 한다 少陽人은 脾가 크고 腎이 작으므로 腎의 기운을 왕성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약재를 써야 한다

이상과 같은 세가지 원칙에서 첫째항중에서 可變的인 조건이란 哀怒喜樂 등의 性情의인 마음의 變化를 조절하여 병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체질은 天理의 法則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哀怒喜樂性情의 작용에 의해 臟局의 大小虛實이 결정된다

● 原文 . 東醫壽世保元 四端論중에서

太陽人은 哀性이 遠散而怒情이 促急하니 哀性이 遠散則 氣注肺而肺益盛이요 怒情이 促急則 氣激肝而肝益削하나니 太陽之臟局이 所以成形於 肺大肝小也요.

少陽人은 怒性이 宏抱而 哀情이 促急하니 怒性이 宏抱則 氣注脾而脾益盛이요 哀性이 促急則 氣激腎而 腎益削하나니 少陽之臟局이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요

太陰人은 喜性이 廣張而樂情이 促急하니 喜性이 廣張則 氣注肝而肝益盛이요 樂情이 促急則 氣激肺而肺益削하나니 太陰之臟局이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요.

少陰人은 樂性이 深確而喜情促急하니 樂性이 深確則 氣注腎而 腎益盛이요 喜情促急則 氣激脾而脾益削하나니 少陰之臟局이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니라

〈해석〉

太陽人은 원래 哀性이 遠散하고 怒情이 촉급한 본성이 있다 哀性이 멀리 흩어지면 기가 肺에 들어가 肺가 더욱 충실해지며 怒情이 촉급하면 氣가 肝을 격동시켜 肝의 기운을 깎는다. 太陽人의 臟局이 이른바 肺大肝小로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少陽人은 怒性이 넓게 포용하지만 哀情이 촉급한 본성이 있다 怒性의 포용력이 넓기 때문에 氣가 脾에 주입되어 脾의 기운이 더욱 왕성해지지만 哀情이 촉급하므로 기가 腎을 격동시켜 腎의 기운이 깎인다 少陽人의 臟局이 이른바 脾大腎小로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太陰人은 喜性이 넓게 퍼지지만 樂情이 촉급한 본성이 있다 喜性이 넓게 퍼지면 氣가 肝으로 들어가 肝의 기운이 왕성해지지만 樂情이 촉급하기 때문에 氣가 肺를 격동시켜 肺氣를 깎는다 太陰人의 臟局이 이른바 肝大肺小로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少陰人은 樂性이 深確하고 喜情이 촉급한 본성이 있다 樂性이 深確하면 氣가 腎에 주입되어 腎氣가 더욱 왕성해지지만 喜情이 촉급하기 때문에 氣가 脾를 격동시켜 脾氣가 더욱 깎인다. 少陰人의 臟局이 이른바 腎大脾小로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四象醫學은 本質的으로 周易의 原理에 의하여 太極生 兩儀(陰陽)하고 兩儀生 四象(太陽, 少陽, 太陰, 少陰)으로 分化된다고 하였다

四象說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즉 그 하나는 對待原理(상대성 원리 ~ 肺大對肝小, 肝大對肺小, 脾大對腎小, 腎大對脾小)가 그 基底를 이루고 또 다른 하나는 太少陰陽의 四元 구조적 原理로서 삼라만상을 우주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四象哲學에서 分四란 太少陰陽의 넷을 말하며 歸一이란 陰陽이 다시 태극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사상철학에 의하여 분화된 四象人을 체질적 類型에만 그치지 않고 哀怒喜樂의 心性論의 類型을 파악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체질적 유형은 分四되어 天稟의 臟理가 벌써 固定되어 있으므로 可變的인 心性 哀怒喜樂을 分四된 太少陰陽에서 陰陽에 돌아가게 하고 陰陽이 다시 太極으로

歸一하게 하므로 사람의 心性이 욕심을 떠나 無心の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天稟의 본래대로)

이것을 자신의 체질에 연관시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醫學의 목적을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데만 있지않고 건강은 人格陶冶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신균형적 차원에서 어떻게 승화시켜 인격도야를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며 治心治病을 목적으로 마음을 다스려서 病을 치료하여야 된다는 醫學이다

四象體質觀

인간의 天稟의 특성을 네가지 체질로 명확히 밝혀 놓았다 여기서 우선 臟理의 특성에 따라 肺, 脾, 肝, 腎 장부의 大小는 단순히 형태의 대소나 장부기능의 虛實개념만이 아니라 呼散之氣, 吸聚之氣, 納積之氣, 出放之氣의 大小偏差로 이해한다 즉 肺大肝小는 呼散之氣가 과다한 반면에 吸聚之氣가 부족하고 肝大肺小는 흡취지기가 과다한 반면에 호산지기가 부족하며 脾大腎小는 納積之氣가 과다한 반면에 放出之氣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四象人の 臟理의 특성은 偏小之臟의 기능을 더 중요시한다 예를들어 少陰人이 腎大脾小하다는 것은 출방지기가 과다한 반면에 납적지기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장리적 특성을 가리킨다. 四象人の 性情에 의하여 臟局의 대소가 결정된다 사람의 心性에는 본질적으로 喜怒哀樂이 발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발로하기 이전의 상태를 천부적인 性이라 하고 이미 발동하게 될 때는 情으로 나타내며 情이 발동되어 장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소가 이루어 진다

太少陰陽의 臟局短張은 천품에 따라 이미 결정되었기에 고정적이다 마음의 淸濁이나 心欲의 闊狹은 천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人事의 修不修에 따라 달라진다

四象醫學은 병의 주된 요소가 바로 체질마다 인체의 장부가 대소, 불균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균형을 잡는데 치료의 목표를 두고 사람의 정신적 요소를 잘 다스려 병을 치료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폐기는 곧게 빨고 비기는 밤톨처럼 감싸주며 간기는 너그럽되 느리며 신기는 부드럽게 쌓인다

肺氣가 곧게 빨는 것은 哀性이 원산하는 생리의 근본이고 脾氣가 밤톨처럼 감싸주는

것은 怒性이 넓게 포용하는 생리의 근본이며 肝氣가 너그럽되 느린 것은 喜性이 넓게 퍼지는 생리의 근본이고 腎氣가 부드럽게 쌓이는 것은 樂性이 심확한 생리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肺脾肝腎의 氣와 喜怒哀樂지성의 관계는 表裏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太陽人은 항상 크게 노하는 일을 경계해야 하고 少陽人은 항상 깊이 슬퍼하는 일을 경계해야 하며 太陰人은 항상 오락에 빠지는 일을 경계해야 하고 少陰人은 항상 지나치게 기뻐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그 까닭은 哀怒의 기운에 위로 올라가는 본질이 있기에 暴怒深哀하게 되면 下焦인 肝腎이 상하게 되며 喜樂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는 본질이 있어 浪樂深喜하게 되면 上焦인 肺脾가 상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음양설적으로 말하면 上升이란 양이 지나치게 많음을 의미하는데 下焦가 陰虛하게 되고 下降하는 음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上焦가 陽虛해진다. 이것이 四象人의 臟局이 형성된 원인이다. 이와같이 陰陽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병적현상이 나타나게 되므로 체질에 따른 喜怒哀樂性情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건강관리의 절정이 되는 것이다.

사상철학에 근거한 사단론은 인간의 특이체질설의 하나로서 그 독창성은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단론은 병인이 心身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외적요소를 지나치게 경계하여 약물치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신적 요소, 즉 喜怒哀樂愛惡欲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의 체질적 특성을 인식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그릇되기 쉬운 점을 경계하며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東武公은 체질의 분류로부터 병형과 처방에 이르기까지의 체계화된 四象醫學을 창조하여 체질의학의 발전사에 크나큰 공헌을 하였다.

三. 결론

四象醫學 학설은 의료실천중에서 세가지 중요한 지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병인학면에서 자연계의 요소인 風寒暑濕의 침습과 脾, 胃, 음식물 등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긍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요소로 인한 마음속의 애증물욕과 喜怒哀樂의 편차로 하여 질병이 초래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둘째 진단, 치료면에서 사회적 심리요소로 하여 인기된 喜怒哀樂의 편차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변상론치의 독특한 의료체계를 형성하였다

셋째, 예방보건학면에서 여러가지 보건조치를 제시하였다. 즉 <簡約하면 장수를 얻

고 勤干하면 장수를 얻으며 警戒하면 장수를 얻고 聞見이 있으면 장수를 얻는다.> <교만하고 사치스러우면 장수하지 못하고(減壽) 나태하면 장수하지 못하며 편협(偏狹)하고 탐욕스러우면 장수하지 못한다 > <호현낙선은 천하의 큰 약으로 된다(好賢樂善, 天下之大藥也).>는 등등의 자기 예방보건의 조치를 제시하였다.

● 原文

頻起怒而頻伏怒則 腰脅이 頻迫而頻蕩也니 腰脅者는 肝之所住着處也니 腰脅이 迫蕩不定則 肝其不傷乎아 乍發喜而 乍收喜則胸腋이 乍闊而 乍狹也니 胸腋者는 脾之所住着處也니 胸腋이 闊狹不定則 脾其不傷乎아 忽動哀而忽止哀則 脊曲이 忽屈而 忽伸也니 脊曲者는 腎之所住着處也니 脊曲이 屈伸不定則 腎其不傷乎아. 屢得樂而屢失樂則 背추暴揚而 暴抑也니 背추者는 肺之所住着處也니 背추抑揚不定則 肺其不傷乎아.

太陽人은 有暴怒深哀하니 不可不戒요 少陽人은 有暴哀深怒하니 不可不戒요 太陰人은 有浪樂深喜하니 不可不戒요 少陰人은 有浪喜 深樂하니 不可不戒니라.

<해석>

자주 화를 냈다가 가라앉혔다 하면 허리 옆구리가 조였다 풀렸다 할 것이며, 허리 옆구리는 간이 붙어있는 곳이니 허리 옆구리가 조였다 풀렸다 안정을 못얻으므로 간이 상하지 않겠는가. 불안간 기뻐했다가 기쁨을 거두면 가슴 겨드랑이가 불안간 넓어졌다가 좁혀질 것이며, 가슴 겨드랑이는脾가 있는 자리이니 불안간 넓어졌다가 좁혀져 안정을 못 얻으므로 비가 상할 수 있다. 문득 슬퍼했다가 슬픔을 그치면 허리척추가 굽었다가 펴질 것이며, 허리척추는腎이 붙어있는 자리니 굽었다 폄다하는 안정을 얻지 못하면腎이 상할 수 있다. 몇번이고 즐거웠다가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등·이마가 갑자기 들렸다가 억눌릴 것이고 등과 이마는肺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등·이마가 들렸다가 억눌려 안정하지 못해서肺가 상할 수 있다. 태양인은 거칠은 노여움과 깊은 슬픔이 있어서 경계하지 아니하면 안되며 소양인에게는 쏟아지는 슬픔과 깊은 노여움이 있어 경계해야 하고, 태음인에게는 설레는 즐거움과 깊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며, 소음인에게는 출렁거리는 기쁨과 깊은 즐거움이 있으므로 경계하여야만 한다.

● 原文

太陽少陽人은 但恒戒 哀怒之 過度而 不可 强做喜樂하여 虛動不及也요 若强做喜樂而 煩數之則 喜樂이 不出於 眞情而哀怒가 益偏也요 太陰少陰人이 但恒戒 喜樂之 過度而 不可强做 哀怒하여 虛動不及也니 若强做 哀怒而 煩數之則 哀怒가 不出於 眞情而 喜樂

이 益偏也니라.

喜怒哀樂之 未發은 謂之中이요 發而皆中節을 謂之和니 喜怒哀樂 未發而 恒戒者 此非漸近於 中者乎아 喜怒哀樂已發而 自反者는 此非漸近於節者乎아.

〈해석〉

태양소양인은 항상 哀怒의 과도함을 경계해야 하지만 억지로 喜樂을 꾸며대어 허둥지둥 뒤따르지 못하게 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억지로 喜樂을 꾸며대면서 뒤숭숭하게 그 일이 잦으면 喜樂이 진정에서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哀怒도 더욱 편벽되어질 뿐이다. 태음·소음인은 항상 喜樂의 과도함을 경계해야 하지만 억지로 哀怒를 꾸미어 허둥지둥 뒤따르지 못하게되면 안된다. 만약 억지로 哀怒를 꾸며대면서 뒤숭숭하게 그 일이 잦으면 哀怒가 진정에서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喜樂도 더욱 편벽해질 것이다.

喜怒哀樂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가리켜 中이라 하고 드러나되 모든 節에 알맞은 것을 和라 한다. 喜怒哀樂이 드러나지 않아도 항상 경계하는 자는 차츰 中에 가까워지는 것일 수도 있다. 또 喜怒哀樂이 이미 드러나고서도 스스로 반성하는 자는 차츰 節에 가까워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活用事例

사상인의 大장기는 相對이고 小장기는 自身이니 自身の 질병을 치료·회복하여야 한다.

(1) 太陰人(肝大肺小)의 담낭결석

• 麻黃定痛湯

① 처방 : 의이인 15g 마황 나복자 각 10g 향인 석창포 길경 맥문동 오미자 사군자 용안육 백자인 각 5g 마른밤 7알

② 기능 : 補肝調氣, 消食止痛

③ 치료 : 胸腹痛

④ 용법 . 하루 2첩 아침 저녁 달여서 복용

〈참고문헌 : 동의수세보원〉

⑥ 활용 . 간 담의 喜力過多이므로 肺의 哀力을 보충하면 병이 낫는다.

× 哀力 : 슬픈 성품으로 좋은 공기를 간직하려는 힘.(溫에너지)

(2) 少陽人(脾大腎小)의 신장결석

• 滑石苦蔘湯

- ① 처방 · 택사 복령 활석 고삼 각 7.5g 천황련 황백 강활 독활 형개 방풍 각 3.75g
- ② 기능 : 壯腎척예
- ③ 치료 : 腎의 예기를 제거 설사를 하지 않는 복통을 치료
- ④ 용법 : 매일 두침씩 아침 저녁으로 달여서 복용
〈참고문헌 · 동의수세보원〉
- ⑤ 활용 · 신장 · 방광의 藥力不足이므로 藥力을 보충하면 병이 치료된다.
× 藥力 · 즐거움 성품으로 찌꺼기를 내보내려는 힘.(寒에너지)

(3) 太陰人(肝大肺小)의 고혈압

• 熱多寒少湯

- ① 처방 : 갈근 15g 황금 고본 각 7.5g 나복자 길경 승마 백지 각 3.75g
- ② 기능 : 斂肺生津, 祛風解表
- ③ 치료 : 傷寒, 허로, 몽설 등 증상
- ④ 용법 : 하루에 두침씩 아침 저녁으로 달여서 복용
〈참고문헌 · 동의수세보원〉
- ⑤ 활용 : 폐와 뇌가 열을 받으므로 상대 장기인 간의 열을 풀어야 하므로 喜樂을 過多하지 말아야 치료된다.
× 喜力 · 기쁜 성품으로 좋은 영양을 저축하려는 힘 (涼에너지)

(4) 少陰人(腎大脾小)의 관절염

• 桂枝半夏生薑湯

- ① 처방 : 생강 11g 계지 반하 각 7.5g 백작약 백출 진피 구감초 각 3.75g
- ② 기능 : 健脾消痰 溫裏止嘔
- ③ 치료 · 허한구토와 결흉증을 치료함
- ④ 용법 : 매일 두침씩 아침 저녁으로 달여서 복용
〈참고문헌 · 동의사상 신편〉
- ⑤ 활용 · 위장의 냉증, 습증이 원인이니 상대장기인 방광을 따뜻하게 하여야 한다
위장의 怒力不足이고 방광의 藥力過多이다
× 怒力 : 화내는 성품으로 좋은 음식을 오래가지고 있으려는 힘 (熱에너지)

이상으로 東武公의 四象醫學 기초이론(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등)중에서 핵심이 되

는 肺脾肝腎과 哀怒喜樂의 관계를 잘 活用하여 疾病치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동의수세보원
사상의학
사상체질의학 참시자
동의사상신편

(학술위원 울산시 중구 교동 192-3 정재당한약방 ☎ 052-212-0750)

꿈과 心

心實하면 可憂 可驚 可怪의 꿈을 꾸며 心虛하면 나는 꿈을 꾸고 心氣蹙하면 언덕이나 山에 불이 나는 꿈을 꾸며 健忘 驚悸 不樂하게 되고 甚하면 胸腹腰脇이 아프고 당기게 되는 것이다.

- 入門 -